

해외출장노트 (중국 베이징)

부서 : 도시외교연구센터

과제코드 :2018-PR-32

출장자 : 이민규

작성일 : 2018년 12월 5일

게시요망일 : 2018년 12월 17일

제목 : [해외출장노트] 한중공동 포럼 참석 및 중국 내 전문가 인터뷰,
서울시-베이징대 교류협력 관계 구축

1. 출장목적

- 본 출장은 한중공동 주최 ‘2018년 신문명 도시와 지속가능발전 포럼’ 참석을 통해 미래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미중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중국 전문가를 인터뷰함으로써 한반도 이슈에 대한 중국 내 관점을 파악하며, 서울시와 베이징대의 교류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베이징의 캐피탈 호텔과 칭화대학교에서 개최된 ‘2018년 신문명 도시와 지속가능발전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함. 이후 베이징대학교를 방문하여 외교학과 교수와 중국현대국제관계학원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이슈와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함. 동시에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 및 국제합작부에 방문하여 서울시-베이징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함.

2. 출장개요

지역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베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공동 포럼 Welcome Session 및 만찬 참석 • 포럼 참석 및 발표 •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인터뷰
	• 칭화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참석 • 반기문 전 UN총장 강연회 참석
	• 베이징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 및 국제합작부 방문, 향후 서울시-베이징대 협력 방안 논의 • 베이징대학교 외교학과 등 교수 인터뷰 및 만찬 참석 : 미중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 중국현대국제관계학원 연구원 인터뷰 : 미중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3. 출장내용

3.1 '2018 신문명 도시와 지속가능발전 포럼' 참석 및 토론

- 주요 참석자
 - 서울연구원: 서왕진, 이민규
- 주요 내용
 - 한중공동 '2018 신문명도시와 지속가능발전 포럼' 목적
 - : 현대 도시가 직면한 근본적인 한계와 지속불가능성이라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도시 문명을 넘어 디지털 기술과 새로운 가치가 결합된 신문명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 신문명 도시 의미화 및 새로운 미래도시 건설 방안 논의
 -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은 신문명 도시임을 확인함. 혁신적인 신문명 도시를 기획 창조할 주체가 인류운명공동체임을 밝힘.
 - : 신문명 도시 건설의 구체적 계획 이행을 위해 일의 첫 단계부터 마지막까지 추진할 기획창조본부의 필요성 강조.
 - : 디지털 혁명과 신문명 도시와의 상관관계를 조명함. 이 과정에서 신문

명 도시 건설이 실제 어떤 과정을 거쳐 건설될 수 있으며 각 분야에서 디지털 혁명이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오는지 토론.

: 신문명 도시 건설의 핵심적인 가치로서 인간성, 창조성을 재확인함. 또한 동서양 가치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미래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함을 재차 강조.

: 신문명 도시의 전망을 Virtual Singapore, Meta-structure, Living lab의 사례로써 제시함.



<사진1> 포럼 주제



<사진2> 포럼 공동주최 기관



<사진3> 서왕진 원장, 이민규 부연구위원



<사진4> Parallel Session2 단체사진



<사진5>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기조연설



<사진6> 이헌재 여시재 이사장 기조연설



<사진7> Welcome Session 패널



<사진8>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3.2 미중관계와 한반도 정세 중국 내 전문가 인터뷰

- 주요 참석자
 - 서울연구원: 이민규
 - 중국 내 전문가
 - : 张清敏(베이징대학교 교수), 曲鹏飞(중앙당교 교수),
 - 肖河(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李亚男(중국현대국제관계학원 연구원) 등

- 주요 내용
 - 미중관계 전망: 협력보다 경쟁관계, 단 경쟁 속 협력 관계 유지
 - : 미중 간 단기적 경쟁관계 심화, 큰 틀에서의 협력관계는 유지될 전망.
 - : 중국의 급부상으로 미중 간 세력전이 추세 지속. 빈번한 마찰 예측 가능.
 - : 시진핑 집권이후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심화.
 - :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한반도 문제 포함 국제 이슈 중점화 미진.
 - : 역대 미중관계 참조, 중국 대외정책의 변화가 미중관계의 변수로 작용.

 - 한반도 이슈의 미중관계 종속화 현상 심화
 -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남북이 주도적인 역할 담당. 그러나 북미관계, 북중관계, 그리고 미중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임.
 - : 한반도 이슈를 둘러싸고, 남북 간, 북미 간, 북중 간 빈번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중 간 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미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지만, 복잡한 미중관계에 의해 난항.
 - : 중국은 남북 중심의, 미국 중심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용납하지 않음.



<사진9> 중국사회과학원 肖河 연구원



<사진10> 베이징대 张清敏 교수 등 만찬



<사진11> 베이징대 교문, 이민규 부연구위원



<사진12> 중국현대국제관계학원
李亚男 연구원

3.3 서울시와 베이징대 간 교류협력 관계 구축

- 주요 참석자

- 서울연구원: 이민규

- 베이징대 관계자:

- : 范士明(베이징대학교 교수), 谷雪(국제합작부 부장조리)

- 陆骄(국제합작부 부주임) 등

- 주요 내용

- 11월 26일 박원순 서울시장 베이징대 특강 논의

- 서울연구원-국제관계학원 교류협력 방안 논의

- : 서울연구원 현황 소개

- : 2019년 서울시, 서울연구원 주체 국제포럼 초대 등 논의



<사진13> 국제관계학원 관계자와 함께



<사진14> 연징학당



<사진15> 박원순 시장 특강 장소



<사진16> 베이징대 서기 면담 장소

자료 제공 및 문의처:
도시외교연구센터
이민규 부연구위원
(02-2149-1121)